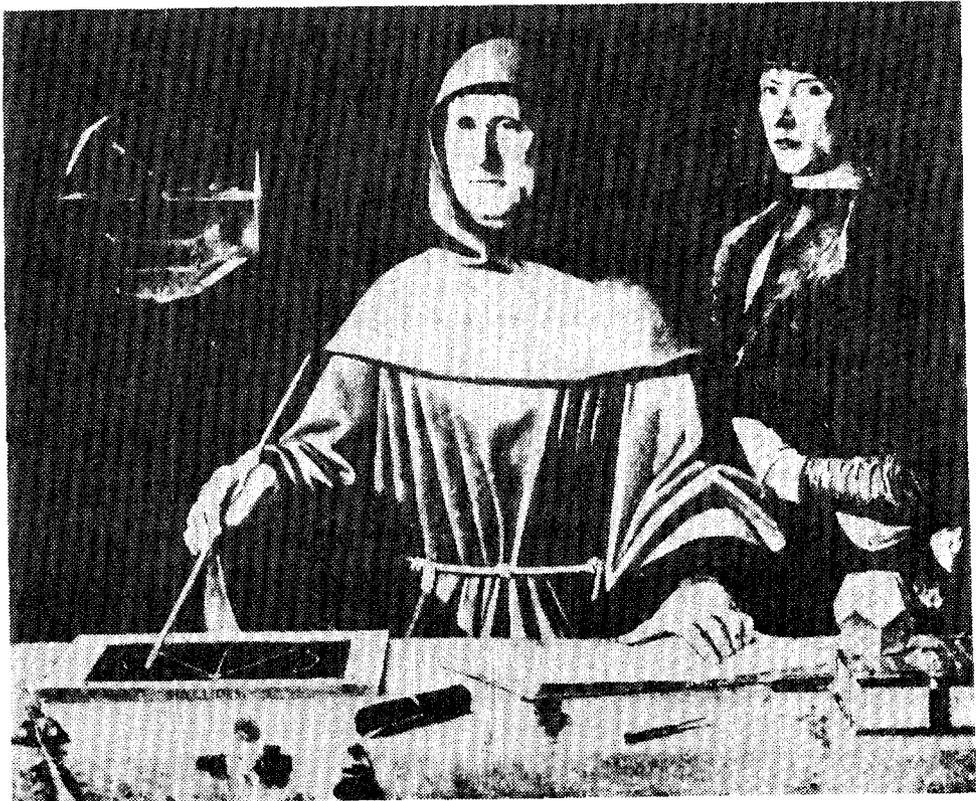


Luca Pacioli의 生涯와 業績

Luca Pacioli His Life and Achievements

李 正 浩*



나폴리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치올리의 초상화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올비노 城主의 아들 귀도발도 공작이다.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I. Luca Pacioli의 고향 산세뿔꾸로

1994년은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가 複式簿記에 관한 책을 최초로 記述하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출판한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 會計學을 전공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500주년을 2년 남겨두고 한 時代를 풍미했던 위대한 인물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여 1992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筆者는 몇몇 교수와 더불어 「會計學의 아버지」로 추앙 받고 있는 파치올리의 故鄉 Sansepolcro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의 始祖로 불리우는 한 인간의 삶의 현장이었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그의 위대한 業績이 나올수 있었던 시대적·지리적 상황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음미한다는 것은 실로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이탈리아 방문계획은 이같은 筆者의 뜻을 수용하여 韓國會計學會의 1992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어 이루어 질수 있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파치올리의 足跡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韓國會計學會 회장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의 결과, 6월 25일 서울을 출발하여 회계의 발상지인 베네치아(베니스)를 비롯하여 피렌체(플로렌스), 산세뿔꾸로, 로마를 비롯한 몇몇 도시를 돌아 7월 5일, 10박 11일간의 學術旅行을 끝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大學教授로서 부담하기엔 좀 벅찬 경비 관계로 비록 10여명 밖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의 방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會計學의 聖地巡禮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 회계학회 회원과 안내원 정익훈씨를 태운 전세버스가 베네치아로 부터 아페닌 산맥의 옆구리를 타고 로마로 달리던 고속도로를 피렌체에서 벗어나 Sansepolcro라는 교통 표지판이 안내하는 대로 동남쪽으로 2차선 도로에 빠져들어 약 2시간 가까이 달린 뒤에 우리의 목적지 산세뿔꾸로에 도착하였다. 이곳 Sansepolcro는 會計史의 文獻에는 Borgo San Sepolcro라고 기술되어 있는 곳이다. 이것은 「성스러운 墓地의 마을」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옛 것과 현대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질서있게 깨끗이 정돈된 도시였다. 로마를 관통하여 흐르는 테베레(Tevere)강 상류의 강을 끼고 있으면서 피렌체에서 동남쪽으로 약 130km, 페루지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60여km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0만의 도시였다. 우리의 방문을 위하여 사전에 이곳을 미리 답사하여 많은 자료를 모아둔 안내인 정익훈씨의 설명을 들으니, 파치올리

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던 그 시절에 돌을 깎아 만든 거리며 흙 벽돌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운치를 더해 주었다.

會計史學者 부라운(R. Gene Brown) 및 존스톤(Kenneth S. Johnston)의 말을 빌리면, 만약 이 거리에서 창문에 설치한 휘장이라던가 피아트 자동차를 빼면 중세의 파치올리가 살던 시대와 거의 다를것이 없는 웅장한 성당과 광장 그리고 농가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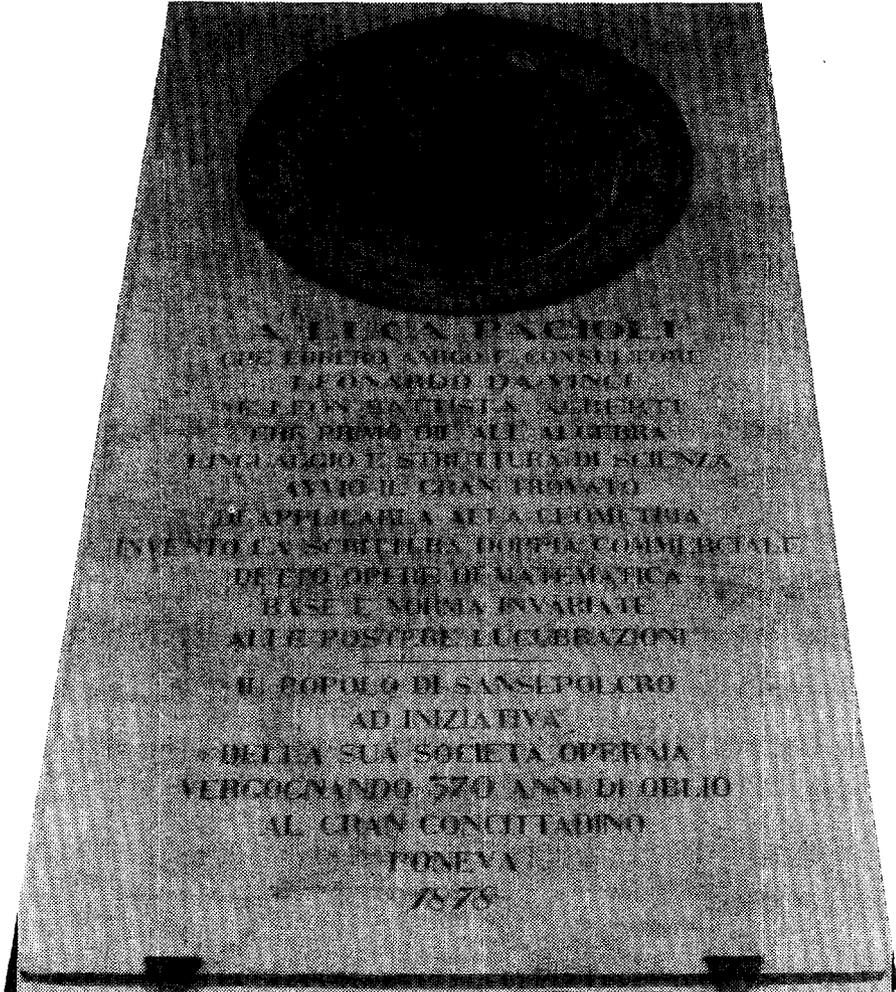
파치올리가 태어났다고 전해오는 거리 Via dei Cipolli(치폴리路)는 지금도 그 옛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生家は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것이 주위에 사는老夫婦의 說明이다. 파치올리가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거리에는 Via Luca Pacioli(루카 파치올리路)란 표지판이 흰 대리석판에 새겨져 도로변의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옛날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그런 거리였다.

이곳 산세뿔꾸로에서 파치올리는 1445년경에 태어나 “20세가 채 되기 전에” 이곳을 떠나 베네치아로 갔다고 하니까 근 20년간을 살았던 곳이다. 그 후 파치올리는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맞아 당시를 빛냈던 수 많은 名士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數學, 神學, 건축학, 군사 전략, 운동과 게임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著書와 論文을 발표하였다.

이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루카 파치올리가 산세뿔꾸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에서도 1869년에 와서야 비로소 루치니(E. Lucchini)에 의해서 루카 파치올리의 저서에 관한 흥미가 환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1878년에 와서야 현재의 산세뿔꾸로 시청의 입구 벽면 오른편의 대리석 판에 파치올리의 위엄있는 초상화와 아울러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넣어 기념비를 건립하였던 것이다.

“루카 파치올리에게

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친구요 조연자이며, 처음으로 대수에 과학의 구조와 체계를 부여하였고 代數를 幾何에 응용한 위대한 창설자였다. 複式簿記를 발명하였고 하나의 礎石이며 미래에도 변치않는 數學에 관한 많은 著書를 남겼다. 商人協會의 자극에 힘입어 망각의 370년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 산세뿔꾸로 주민들은 이 위대한 시민을 기리어 記念碑를 세운다. 1878년”



산세폴꾸로 시청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념비

물론 複式簿記는 파치올리가 발명한 것은 아니다. 14세기 초엽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도 역시 자기 자신이 複式簿記의 創始者라고 주장하지 않고 “베네치아에서 사용하고 있던 원리를 이곳에 紹介하고자 하는 바 이는 그 어떤 원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라고 그의 簿記

에 관한 論文에서 記述하고 있다.

또 이곳에 그려져 있는 파치올리의 초상화는 현재 나폴리의 국립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에서 복사한 것이었다. 이 그림은 아버지 페데리고(Federigo)를 계승한 올비노(Urbino)의 공작인 귀도발도(Guidobaldo)라는 그의 제자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1495년 야코포 디 바바리(Jacopo de Babari)가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그려져 있는 파치올리의 초상화는 프란체스코 敎團의 의상을 입고, 엄숙하고 심각한 얼굴과 결단력 있는 턱을 갖고 있어서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의 학술여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파치올리가 그의 스승 프란체스카를 따라 자주 방문했던 올비노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곳의 도서관 그리고 파치올리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는 나폴리의 국립 미술관을 보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 파치올리를 찾아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사람은 산세뵐꾸로 외에도 파치올리가 강의를 했던 베네치아, 올비노, 나폴리, 페루지아, 로마, 파도바, 피사, 앓시지 등도 찾아가 그의 足跡을 더듬어 보는 것이 회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보다 값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세뵐꾸로를 방문한 한국회계학회 회원이 기념비를 배경으로...

II. 파치올리는 어떤 인물인가?

會計學에 관한 초보적인 教育을 받은 사람이라면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회계학의 始祖로 추앙받는 인물로서 큰 갈등과 분열의 시대상을 이루던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생애를 보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1494년에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算術幾何比 및 比例 總覽」(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하 「總覽」이라 함)의 일부에 포함된 「計算 및 記錄에 관한 詳論」(De Computis et Scripturis)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複式簿記의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500년전의 파치올리가 오늘날에도 人口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가 複式簿記에 관한 최초의 저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에 의하여 구체화된 複式簿記의 기본적인 체계가 지금에 와서도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論文에서 제시한 商業에 성공하기 위한 그의 提案은 15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파치올리가 살던 당시는 이탈리아의 이름있는 家門들이 각자의 勢力을 확고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家門 및 都市 國家들 간의 싸움이 빈번하여 편안하지 못한 시기였다. 지도적 위치에 있던 家門, 공작 그리고 올비노,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과 같은 도시들간의 同盟 關係의 변화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였다. 教皇聽의 영향하에 있었던 국가들은 宗敎的인 문제는 말할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政治的인 문제까지도 教皇에 종속되어 있었다. 특히 밀라노지방을 중심으로한 북부 이탈리아 지방은 프랑스인에 의하여 점령되곤 하였으며, 때때로 스페인 사람들은 남부 이탈리아 지방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동부지방에서는 터어키인들이 여러 貿易路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헝가리인들은 아드리아海를 사이에 두고 달마치안 海岸을 따라 거주하면서 짜라와 라구사 등의 중요한 도시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살았던 파치올리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著術家였으며 講演과 講義에서는 청중을 사로잡았던 講士이며 教師였다. 그는 또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으로서 數學, 神學, 建築學, 軍事戰略, 運動과 게임등 다방면에 걸쳐 깊은 조

예를 지닌 인물이었다고 많은 著書와 論文을 발표한 학자로서 당대에는 물론이고 후세에 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파치올리는 그와 同時代 사람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레온 바티스타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울비노(Urbino)의 공작 페데리코(Federigo),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 피사(Leonardo da Pisa), 라파엘(Raphael) 그리고 미켈란젤로(Michelangelo)와 더불어 르네상스 황금기의 多才多能했던 人間の 定型이었고, 마지막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치올리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이다. 오늘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치올리의 著書 역시 많은 학자들의 研究對象이 되고 있고 또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치올리는 여러 해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때로는 종교적으로 神話的 存在로 평가받는가 하면, 때로는 異端者로 몰리기도 하였으며, 전통주의자로 불리는가하면 구습타파주의자로도 불리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叡智의 所有者로 稱호를 받는가 하면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또 創意力있는 學者로 認識되는가 하면 한 때에는 표절자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1464년 교황 바오로 2세로부터 약 50년 후인 식투스 4세에 이르는 7명의 교황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해 있던 프란시스코 敎團으로부터 破門당할 뻔하기도 했다. 사실 파치올리는 學問的인 면에서 評價할때 새로운 이론의 開拓者와 解說家라기 보다는 이론의 編輯者요 翻譯家였다. 파치올리는 이론 그 자체도 중요하나 이것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용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理論을 실제에 適用한 최초의 實驗家”로 평가되었다.

15세기경 대부분의 책들은 라틴어로 기술되어 있어 소수의 학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파치올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평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문필활동을 하였으며 數學的 概念과 技法을 商業에 適用시키는 한편, 이들을 日常的인 用語로 전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Ⅲ. 고향 산세뿔꾸로에서의 파치올리

루카 파치올리는 1445년경 이탈리아의 중부 투스카나 지방의 Borgo San Sepolcro라는 작은 마을의 한 중하류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근 20년 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가정이 빈곤하여 개인 교사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종교 학교에 입학하여 프란시스코 修道會의 修道僧으로부터 文法, 修辭學, 論理學 등 일반교육과 聖經 및 앗시지의 聖프란시스코 敎理 등 엄격한 宗教教育을 받았다.

16세가 되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당시 그곳의 유명한 상인이었던 폴코 데 벨폴씨(Folco de Belfolci)家の 見習工이 되었다. 당시 견습공으로서의 期間은 技術을 습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년에서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처음의 期間은 父母가 訓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나 徒弟期間이 끝난 때 젊은 사람은 職人이 되어 윗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하고 報酬를 받았다. 職人으로서의 기간이 끝나고 資金이 있으면 독립된 입장에서 店舖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16세 이후에도 교육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이와 같이 그의 初期教育은 사업적 경험이 강조되는 폴코 데 벨폴씨 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그의 宗教的 敎育은 프란시스코 敎團의 門下生들로부터 받았다. 그렇지만 見習工으로서의 파치올리는 현실에 만족 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당시에 유명한 畫家이고 數學者였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문하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見習工으로서의 生活을 청산하였다.

프란체스카는 1416년경 파치올리의 고향인 산세뿔꾸로에서 태어났다. 哲學, 幾何學, 正面體의 圖學的 處理등에 관하여 걸출한 大家로서 인정받는 학자였던 프란체스카는 파치올리가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미 유명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유명한 화가는 여러명의 門下生을 거느리고 있었다. 파치올리는 프란체스카의 문하에 들어가 數學, 그 중에서도 특히 比例에 관한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全生涯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그가 63세에 가졌던 베네치아의 한 강연에서 “모든 힘겹고 어려운 것

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비례에 관한 것”이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

파치올리는 소년시절에 외부세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곳이 다름 아닌 산세뵐꾸로에서 동북쪽으로 60여 km 떨어져 있는 올비노(Urbino)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올비노는 피렌체의 동쪽, 페루지아의 동북쪽 그리고 아페닌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小國이었으나, 1444년에 Federigo Montefeltro가 공작의 직위를 맡게 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된 곳이다. 파치올리의 스승인 프란체스카는 페데리고 공작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파치올리는 프란체스카의 소개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올비노의 훌륭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행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圖書館은 당시 최고로 일컬어졌던 교황청 도서관이나 옥스포드 大學의 도서관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파치올리는 라틴어로 쓰여진 古典書를 이 도서관에서 탐독하였으며 후에 그의 力著 「總覽」에 삽입한 단테(A. Dante) 등의 語句도 이 시기에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올비노의 페데리고 공작의 외아들 귀도발도(Guidobaldo)공과 친하게 되었다. 파치올리는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 올비노 공작 페데리고와 그의 아들 귀도발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훗날 그의 다섯 번째 著書인 「總覽」을 이들에게 獻呈하였다.

IV. 훌륭한 교육을 받은 學識높은 人物

파치올리는 “20세가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세 쯤에 그의 고향 산세뵐꾸로를 떠나 베네치아로 갔다.

베네치아의 기원은 5세기 중기에 Attila의 侵略을 두려워한 Veneto族이 육지를 탈출하여 베네치아 주변의 늪지로 된 섬에 이주해 살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697년에는 共和制를 확립하고 憲法을 제정하였으며, 9세기가 되어서 베네치아는 都市로서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후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베네치아는 황금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최강국은 베네치아 共和國이었으며, 파치올리가 활발하게 活動하고 있던 15세기의 베네치아는 地中海上의 霸者로서 「아드리아海의 女王」, 「共和國의 貴人」, 「이탈리아의 眞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대로였다.

베네치아에서 파치올리는 당시 富裕한 商人 안토니오 데 롬피아시(Antonio de Rompiasi)의 세 아들 발토로(Bartolo), 프란체스코(Francesco), 파올로(Paolo)의 家庭教師가 되었다.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身分이 높고 돈이 있는 가정에서는 家庭教師에 의한 교육방법을 택했는데, 이때 가정교사는 보통 下級の 雇傭人과 다름없이 취급 받았다. 그러나 파치올리의 경우는 例外的이었다. 어떤 사람은 루카 파치올리는 롬피아시家와 그 아들들의 손님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파치올리는 롬피아시家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商品을 運搬하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여행하면서 그 商人을 위한 助手의 역할도 하였다.

파치올리는 롬피아시의 가족과 더불어 6년간 생활하면서 數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세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어 그가 26세때 저술한 數學을 주제로 한 그의 첫번째 論文을 이 세 아이들에게 獻呈하였다.

파치올리의 생각으로는 롬피아시의 세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산술과 簿記는 필요한 科目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파치올리가 언제 복식 부기의 근본 원리를 터득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가 산세벨꾸로에서 견습공으로 있었을 때 벨폴씨(Belfolci)家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롬피아시의 세 아이들에게 베네치아식 簿記를 가르친 것을 보면 베네치아에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공부한 것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파치올리는 롬피아시의 세 아들을 가르치면서 파도바를 자주 여행하고 도 파도바 대학을 자주 방문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대학과 인연을 맺고 나머지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롬피아시 가족과 6년을 지낸 후 파치올리는 알베르띠 밑에서 공부하고자 투스카나에 갔다. 알베르띠는 성공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저서로 더욱 유명하다. 그는 건축, 미술, 높이 측정 방법, 산문과 운문, 자신의 가문에 관한 책, 라틴語 희극에 관한 책 등 17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프란체스카와 알베르띠의 문하에게 많은 공부를 한 파치올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은 개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두 사람은 매우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학자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후기 르네상스 전성기를 대변한다면 알베르띠는 초기 르네상스 전성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 후 투스카나에서 공부를 마친 파치올리는 알베르띠와 함께 로마로 돌아왔다. 알베르띠는

언제나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여러 교황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치올리는 알베르띠를 통해 교황 베드로 2세를 만날 수가 있었다.

파치올리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알베르띠를 만난 후에는 聖職을 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알베르띠는 파치올리에게 母國語로 책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자극을 주었다.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파치올리가 그의 人生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은 1472년 알베르띠가 사망한 뒤의 일이다.

V. 1494년 불후의名著「總覽」이 탄생

파치올리가 처음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된 것은 그가 31세가 되던 1475년 페루지아 대학에서부터였다. 이곳에서 그는 수학을 강의하였는데 이때에 비로소 수학이 대학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파치올리는 수학 강의를 맡은 첫번째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론 그 자체도 중요하나 그것이 실제로 응용되지 못할 때는 거의 쓸모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학을 실제문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例나 건축과 예술 분야에서의 적용 例를 제시하곤 하였다.

파치올리는 그의 학문적 토대와 강의 능력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그의 명성은 전 이탈리아로 퍼져 나갔다.

파치올리가 1480년에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페루지아를 떠난 뒤 오늘날 博士에 해당하는 magister 또는 master의 칭호를 받고 6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페루지아에서 두번째 임기를 보내는 동안 파치올리는 「總覽」의 상당량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 책을 1470년경에 시작하여 그 대부분을 1486년에서 1488년 사이에 집필하였다. 1486년에 페루지아에 돌아온 후의 8년간은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공개강의를 하고 나폴리, 파도바, 피사, 앗시지, 베네치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울비노에서 수학을 강의하였다. 1494년이 되기 얼마전에 파치올리는 얼마간의 시간을 울비노에서 보내면서 그의 力著「總覽」을 집필하고 출판 준비를 하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울비노의 공작인 귀도발도와의 우정을 새롭게 하였으며, 또 공작은 파치올리가 그의 계획을 끝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1494년 50세를 맞이한 그는 베네치아에 돌아와서 그의 5번째 著書인 불후의 名著 「總覽」을 출판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파치올리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교분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496년에서 1499년까지 3년 동안 두 사람은 두 개의 고전을 창조하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파치올리는 그의 두번째 중요 저서인 「神聖比例論」(De Divina Proportione)을 완성한 것이다.

1500년에서 1505년 까지 파치올리는 피사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로마 교황청의 副書記官長의 집에 거주하면서 유클리드 幾何學을 라틴語로 번역하고, 1508년에는 베네치아에 돌아와서 이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해에 출판하였다. 그 후 1510년에는 그가 출생한 고향에 있는 산세뵐꾸로 僧院의 원장이 되었고 4년 후에는 로마 교황 레오 10世(Leo X)의 초청청에 따라 로마대학에서 수학강의를 하였다.

파치올리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514년 70세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總覽」 제2판이 출간된 1523년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VI. 「總覽」은 어떤 冊인가?

1494년에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總覽」은 무려 30년간에 걸쳐 집필한 것이다. 파치올리가 「總覽」을 집필하게 된 주된 목적은 數學과 簿記에 관한 資料를 정리하고 그것을 이탈리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總覽」은 당시의 技學知識의 요약서 및 一般入門書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 論題을 다루고 있다.

- (1) 算術과 代數
- (2) 算術과 代數의 去來計算에의 利用法
- (3) 簿記
- (4) 貨幣와 交換
- (5) 純粹幾何學과 應用幾何學

「計算과 簿記에 관한 詳論」(Particularis de Computis et Scripturis)이란 말로 표현된 簿記에 관한 論文은 전체가 36개의 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크게 구분하면 이는 在庫資産으로 일컫는 부분과 처분으로 불리우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 두 부분에서 파치올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簿記節次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사업용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초의 분개를 행하며, 거래를 기록하며 원장에 전기하고, 전기한 내용에 주석을 첨부하고, 부기절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試算表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名目計定을 마감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자본계정에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파치올리는 이와같은 부기과정의 절차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內部統制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備忘錄, 分介帳, 元帳에 번호와 날짜를 붙일것과 각 페이지에도 미리 番號를 부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그는 去來文書들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保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비용항목들을 독립된 계정에 記錄하게 되면 너무 複雜하고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세부적인 비용항목들에 대한 集合計定을 설정할 것과 內部統制目的을 위해서는 帳簿를 감사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備忘錄은 거래의 발생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장부의 전체적인 절차는 파치올리가 기술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複式簿記의 節次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치올리는 讀者들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삽입한 사업에 관한 警句들은 오늘날에도 흥미롭게 읽을 價値가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들면 “秩序가 없는 곳에는 混亂만이 있을 뿐이다”라든가 “모든 行爲는 결국 목적에 의해서 評價되어 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失手를 하지 않으며, 失手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수 없다.” “官吏들은 세부적인것에 관심이 없다.” “사업을 하는 자가 자기 사업에 관한 모든것을 알지 못하면 돈은 파리 처럼 날아가 버린다.” “베플므로서 그대의 富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제때 제때 計算하여야만 友情을 오래 유지 할 수 있다”는 등등의 名言을 남기고 있다. 그는 또한 損失을 설명할 때에는 “참으로 선량한 基督教人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고도 있다.

파치올리는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그의 업적에 합당한 명성도 얻었다. 광범하게 읽혀졌던 그의 많은 著作들은 그 시대의 중요한 공헌이었다. 이론을 실제에 연결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을 전달함으로써, 파치올리는 그의 동년배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만이 위대한 인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